

'94년 석유제품 소비분석 및 '95년 전망

김 주 현
 <대한석유협회 조사과장>

1. '94 석유제품 소비분석

(1) 개요

'94년 석유소비는 621,744천배럴로써 전년대비 10.1% 증가하였다. '93년의 9.8%에 이어 2년 연속 10% 수준

을 나타낸 것으로 지난 '88~'92년 5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 19.6%에 비해서는 크게 안정세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선진국의 소비증가율 및 경제성장율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며 계절적, 제품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석유소비추이

(단위 : 천배럴)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소 비 (천배럴)	250,558	287,146	356,349	424,666	514,224	564,575	621,744
증 가 율 (%)	19.0	14.6	24.1	19.2	21.1	9.8	10.1

'94년 석유소비는 경기회복에 의한 산업용 원료유 증대와 하절기 이상고온에 의한 발전용유류의 증대, 그리고 도

시가스(LNG) 보급 확대에 따른 가정상업용 등유, 프로판의 증가율 둔화로 특징을 지을 수 있다.

분기별 석유소비 추이

(단위 : 천배럴)

	1/4	2/4	3/4	4/4	계
1993년	156,246	121,182	121,422	165,725	564,575
1994년	168,686	136,623	137,052	179,382	621,667
증 가 율 (%)	8.0	12.7	12.9	8.2	10.1

부문별로는 절대량이 가장 많은 산업부문이 경기 회복으로 전년대비 9.6%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수송부문이 자동차 증가와 레저인구 확산 등으로 12.1% 증가하였고, 발전 부문은 이상고온현상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으로 14.9%

증가하였다. 또한 공공기타부문이 19.0% 증가한 반면 가정상업부문은 도시가스로의 전환으로 5.2%의 증가에 그쳤다.

부문별 석유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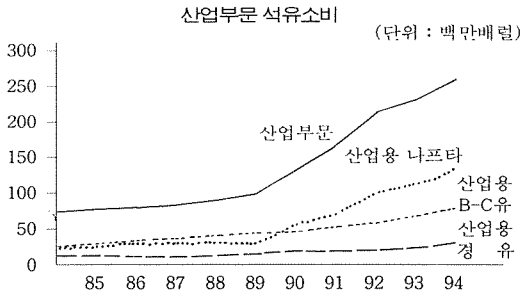
(단위 : 천배럴)

	산 업	수 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발 전	도시가스
1993년	234,365	150,695	111,286	10,678	48,728	8,824
1994년	256,886	168,898	117,112	12,704	55,984	10,161
증 가 율 (%)	9.6	12.1	5.2	19.0	14.9	15.2

(2) 부문별 석유소비

1) 산업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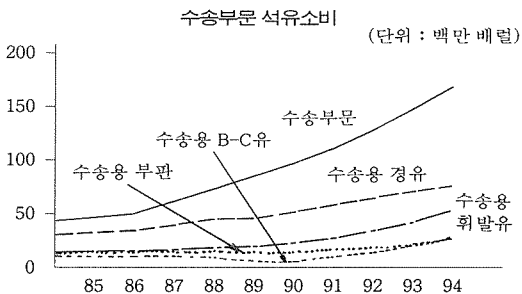
총석유 소비의 41.3%를 점하고 있는 산업부문은 전년 대비 9.6%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 '93년의 7.3%보다 2.3%p 상승하였다. 이는 산업경기 호조에 따른 8.3%의 높은 경제성장률에 기인한 것으로 특히 석유화학업종이 '92년의 신증설 완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기회복에 따른 가동률 증대로 원료용 나프타소비가 전년대비 13.5%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연료용 B-C유와 경유의 소비는 전년대비 6.7%와 5.4%의 증가율에 그쳤다.



2) 수송부문

수송부문의 석유소비는 자동차보유 대수의 지속적인 증대와 경기호조에 따른 수송물동량 증대로 전년대비 12.1%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전년의 14.0%보다는 1.9%p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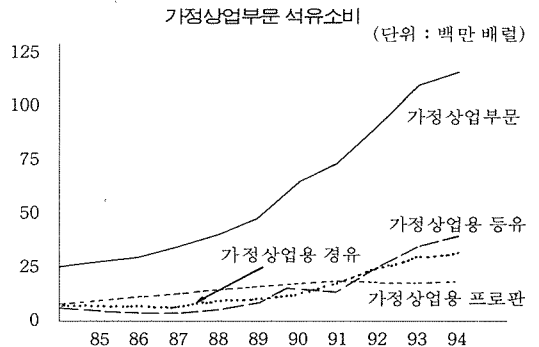
승용차용 휘발유는 자동차수의 지속적인 증대와 차량의



중대형화 및 레저활동 인구 확산으로 전년대비 21.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선박용 B-C유는 수출입 물동량의 증대로 전년대비 17.5%로 증가하였고, 항공부문도 국제화·개방화 추세 및 국내외 경기회복으로 여객, 화물수송 증대에 힘입어 14.0% 증가하였다. 그리고 영업용택시의 부탄사용은 9.5%, 수송용경유는 6.3%의 증가에 그쳤다.

3) 가정상업부문

가정상업부문은 전년대비 5.2%의 증가율에 그쳤으나 등유는 꾸준한 상승세로 전년대비 11.5% 증가하였다. 그러나 '93년의 30.4% 증가율에 비해서는 대폭 둔화된 것이며 경유는 6.0% 증가하였다. 반면 프로판과 B-C유는 0.4%와 3.8%씩 감소하였다. 가정상업부문의 주유종은 등유(35.2%), 경유(30.9%), 프로판(22.9%), B-C유(10.0%)으로 특히 '94년도는 도시가스 전환으로 프로판의 구성비가 '93년의 24.2% 비중에서 1.3%p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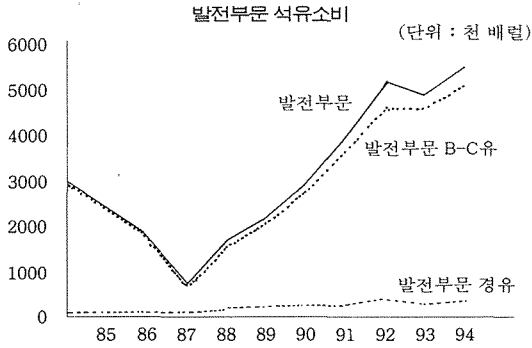


4) 발전부문

'94년도 발전부문의 소비는 전년대비 14.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하절기에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한 냉방전력 수요 증대로 '93년의 6.0% 감소에 비교할 때 무려 20.9%p 상승한 결과가 되었다. 또한 여름철 강우량 부족으로 인한 수력발전 감소도 화력발전 수요의 증대요인이 되었다. 발전부문은 B-C유가 94.8% 경유가 5.1%를 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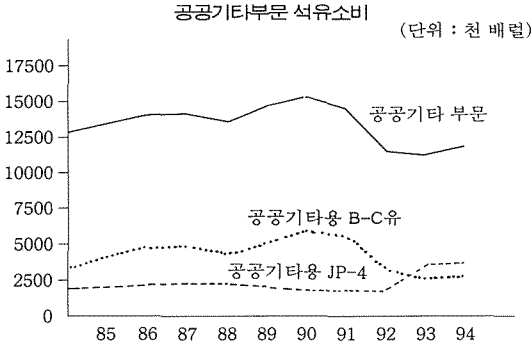
(단위 : 천배럴)

	휘발유 (승용차용)	부탄(택시, 및 소형승용차)	B-C유 (선박용)	Jet. A-1 (항공기용)	경유(승합차, 트럭, 선박, 철도)
1993년	40,381	13,954	14,027	10,168	70,771
1994년	48,864	15,280	16,478	11,594	75,199
증가율(%)	21.0	9.5	17.5	14.0	6.3



5) 공공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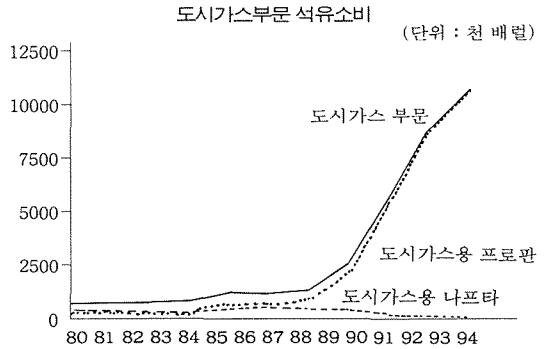
공공기타부문의 석유소비는 전년대비 19.0%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 부문은 주로 경유, B-C유 및 JP-4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유는 전년대비 14.8%, B-C유는 무려 66.9%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JP-4는 균용수요 감소로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도시가스 제조용

'94년도 도시가스부문의 소비는 전년대비 15.2% 증가하였다. 주로 경인지역을 제외한 지방권의 도시가스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프로판은 LPG망 확대에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LNG 대체현상으로 그 폭은 크게 둔화되고 있다.



(3) 유종별 석유소비

1) 휘발유

'94년 휘발유 소비는 전년대비 20.2% 증가한 51,112천배럴로써 전년도의 증가율 20.6%보다 약간 둔화되었다. 특히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으로 인한 차량용 에어컨 사용증대와레저 활동증대로3/4분기는전년동기대비무려29.6%라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에 동절기인 1/4분기와 4/4분기는 전년동기 대비 13.8%, 16.2%의 증가를 나타냈다.

휘발유가총석유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년 8.2%로써 '86년의 4.3%, '90년의 6.6%에 비해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와 OECD의 평균 휘발유 비중이 31%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국내 휘발유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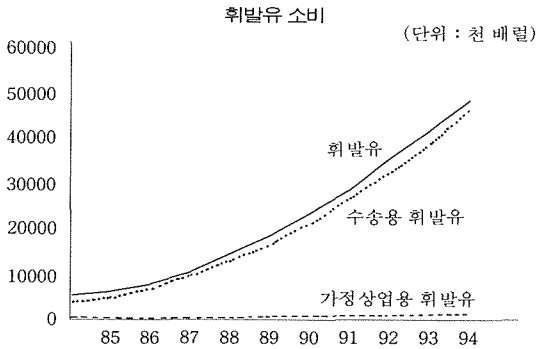
자동차1대당휘발유소비량은 '94년 9.49배럴로써 '90년의 11.62배럴, '93년의 9.91배럴과 비교할때 점점 감소 추세에 있다. 이는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연비개선 및 주말용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94 휘발유소비증가율(분기별)

	1/4	2/4	3/4	4/4	연 평균
1993	21.3	15.9	20.3	24.6	20.6
1994	13.8	20.6	29.6	16.2	20.2

총석유소비중 휘발유소비 비중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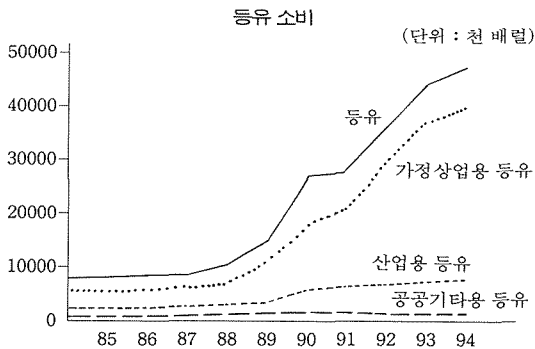
	1986	1988	1990	1992	1994	OECD('92)
휘발유 소비	8,557	13,578	23,693	35,248	51,112	
총 석유 소비	200,591	250,558	356,349	514,224	621,774	
비중	4.3	5.4	6.6	6.9	8.2	31.0



2) 등유

'94년 등유의 소비는 47,885천배럴로써 전년대비 10.7% 증가하여 지난 2년간의 연평균 30.0%에 비해 매우 둔화되었다. 그러나 석탄으로부터의 연료전환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아직 증가율은 높지만은 무연탄의 연료대체가 등유 및 가스로 양분화되고 또 등유 사용 기구가 도시가스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 등유의 부문별소비는 가정상업부문이 전체의 86.1%, 산업용이 11.7%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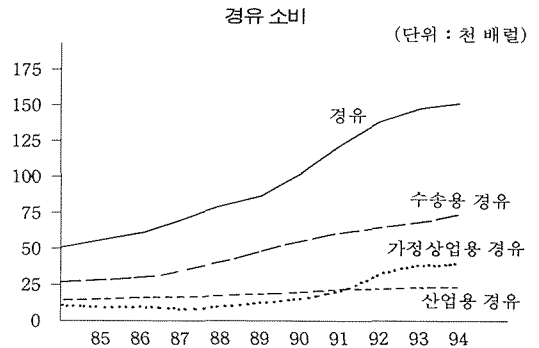
등유의 소비추이는 '88~'90년의 국민생활 향상으로 연평균 무려 45.2%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91년 2.6%로 거의 정체하였고 '92~'93년은 또다시 연평균 30.0%라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3)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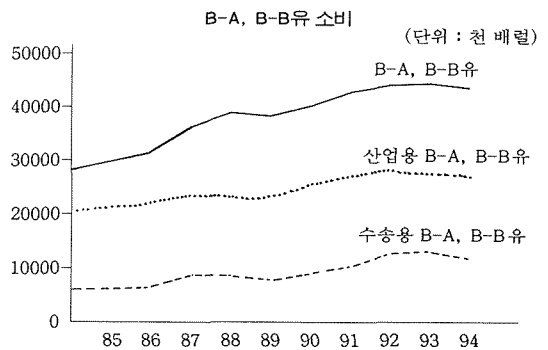
경유는 수송용, 가정상업용, 산업용 등 여러 부문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는 관계로 전체 석유소비의 23.7%를 차지하고 있다. '94년 경유의 소비증가율은 6.7%로써 '93년의 8.3%보다 1.2%p 하락하였다.

부문별로는 하절기 이상고온 현상으로 발전용이 전년 대비 36.1%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산업부문과 수송부문이 각각 5.4%, 6.3%로 증가폭이 약간 둔화되었으며 가정상업부문은 6.0% 증가하여 '93년의 19.8%에 비해 대폭 둔화되었다.



4) B-A, B-B유

전체석유소비의 0.7%에 불과한 B-A, B-B유는 최근 몇 년동안 거의 정체했으며 '94년도는 오히려 전년 대비 1.6%



(단위: 천배럴, 대, 배럴/대)

	1990	1991	1992	1993	1994
수송용 휘발유	22,250	26,910	33,418	40,381	48,864
자동차 대수	1,915,591	2,553,241	3,272,513	4,076,113	5,148,713
1대당 휘발유 소비	11.62	10.54	10.21	9.91	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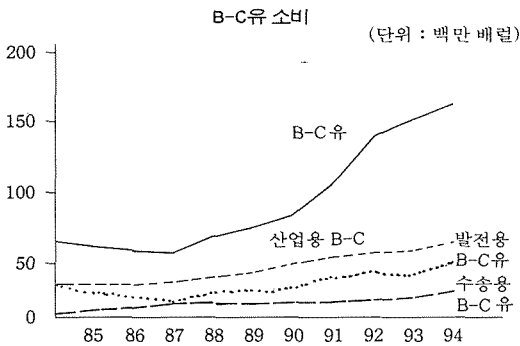
자동차 대수 = 관용 + 자가용 승용차(영업용 제외)

감소하였다. 주로 산업용과 연안수송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각각 5.1%, 6.7%씩 감소하였다. 부문별로는 산업용이 61.6%, 수송용이 22.9%로 구성되어 있다.

5) B-C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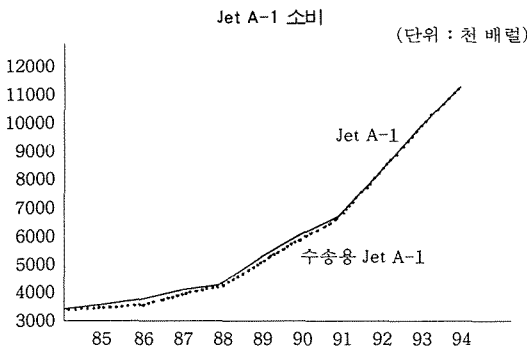
전체석유소비의 25.7%를 점하고 있는 B-C는 전년대비 10.0% 증가하였다. 부문별 구성비는 산업용 47.1%, 발전용 33.2%, 수송용 10.3%, 가정상업용 7.3%로 되어 있다.

발전용 B-C는 하절기 이상고온 현상으로 전년대비 13.9% 증가하였고 수송용 B-C(선박용)는 산업 경기 호조로 인한 수출입 물동량 증대로 전년대비 17.5% 증가하였다. 반면에 산업부문은 6.7%의 증가에 그쳤고 가정상업부문은 연료 대체로 3.8% 감소하였다.



6) Jet A-1

전체석유소비의 1.9%를 점하고 있는 Jet A-1은 전량항공기 연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Jet A-1은 국제화, 개방화 추세와 국내 및 세계 경기회복으로 여객 및 화물 증가 그리고 노선확장등으로 전년대비 14.5% 증가하였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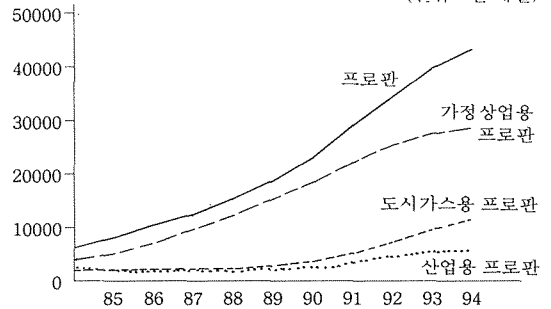


러나 '92, '93년의 24.7%, 19.8% 증가에 비해서는 대폭 둔화된 것이다.

7) 프로판

'94년 프로판의 소비증가율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41,825천배럴이었다. 주로 가정상업용 취사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 부문의 소비는 도시가스로의 전환으로 전년대비 2.4% 감소하였다. 그러나 경인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도시가스 제조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도시가스부문은 전년대비 15.7% 증가하였다. 또한 산업용으로는 경기회복에 따라 전년대비 23.1%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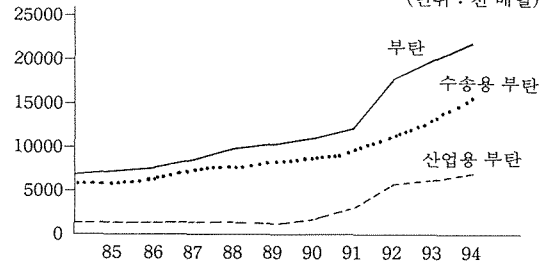
프로판 소비 (단위: 천 배럴)



8) 부탄

'94년 부탄의 소비는 전년대비 8.2% 증가한 21,491천 배럴이었다. 주로 영업용택시 및 소형승합차에 사용되고 있는 부탄은 최근 차량 증대로 수송용이 9.5% 증가하였다. 반면 화학원료로 사용된 부탄은 최근 LPG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전년대비 5.2%의 증가율에 그쳤다.

부탄 소비 (단위: 천 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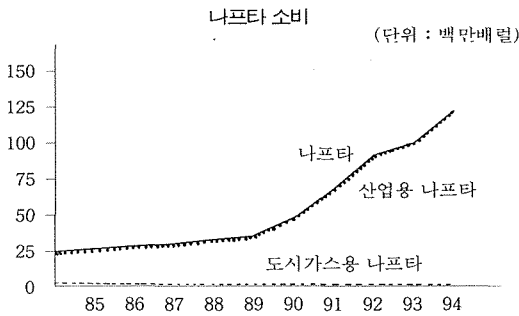


9) 나프타

전체 석유소비의 19.8%를 점하고 있는 나프타는 전량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94년도는 석유화학업계

의 호황으로 에틸렌생산시설이 거의 100%를 가동할 정도로 여서 이에 따른 나프타 소비는 전년에 비해 무려 13.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나프타는 전체 석유소비증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은데다 소비증가를 마저 높아 '94년도 전체 석유소비 증가를 부추겼다. '95년도는 석유화학 공장의 신증설 계획이 없고 현재 시설을 풀가동하고 있는 상태이나 최근 LPG의 국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LPG 대체로 그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 '95 석유제품 소비전망

'95년 석유제품소비는 전년대비 8.1% 증가한 672.173 천배럴로써 전년의 10.1%에 비해 2.0%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94년 석유소비증대 요인은 하절기 이상고온 및 경기회복에 의한 것이었던 반면에 '95년은 정부의 경기안정정책으로 산업용 유류의 소비증대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94년말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LPG의 국제가격상승으로 LPG의 나프타로의 대체 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유종별로는

- 휘발유는 최근의 레저인구증대 추세 및 선진국 수준(휘발유 비중 30% 이상)을 감안할 때 증가율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교통 체증으로 인한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율 둔화로 '94년 보다는 4.1%P 낮은 16.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등유는 석탄으로부터의 연료 전환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무연탄의 연료 대체는 등유 및 가스로 양분화되고 있고 등유사용가구가 도시가스로 전환되고 있어, 그 증가율은 전년에 비해 2.1%P 낮아진 8.6%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경유는 산업용과 가정상업용의 소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고 전체 경유의 51%를 점하는 수송용도 사용차의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보여져 전년대비 0.5%P 낮아진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B-C유는 '95년 경기안정 정책과 전년도 이상고온으로 발전용 B-C유가 크게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95년 석유소비증가율은 전년에 비해 1.7%P 낮아진 8.3%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나프타는 '95년 석유화학업계의 호황으로 이 부문이 전년대비 6.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또한 '94년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LPG 국제가격으로 인해 비로업계의 원료 전환 물량이 크게 증가(2.4%)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9.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남해화학의 경우 '95년 나프타대체물량이 300만배럴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 LPG는 프로판의 경우 LNG의 공급확대로 소비증가율이 전년의 5.7%보다 0.5%P 낮아진 5.2%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탄도 석유화학용 수요의 나프타대체로 전년의 8.2% 증가율에서 크게 둔화된 2.0%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제품별 소비전망

	물 량 (천배럴)			증 감 률 (%)	
	1993	1994	1995 전망	1994	1995 전망
휘발유	42,508	51,112	59,341	20.2	16.1
등유	43,259	47,885	52,003	10.7	8.6
B-C유	138,021	147,334	156,469	6.7	6.2
나프타	145,548	160,045	173,329	10.0	8.3
프로판	108,577	123,219	134,432	13.5	9.1
부탄	39,576	41,825	44,000	5.7	5.2
기타	19,862	21,491	21,921	8.2	2.0
계	27,224	28,833	30,678	5.9	6.4
계	564,575	621,744	672,173	10.1	8.1